훈민정음과 실담문자[1)]

안주호(순천향대)·이태승(위덕대)

1. 서론

(1) ㄱ.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ㄴ. 正音制字尙其象 (중략) 中聲十一亦取象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訣>
ㄷ. 象形而字倣古篆 <訓民正音 解例本 정인지서>

2. 실담문자

2.1 범자의 성립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 즉 범어는 베다어에서 유래하는 오래된 언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라문 계급에 의한 베다 문헌의 암송(暗誦)과 구송(口誦)을 주목적으로 하여 전승되어진 언어이다. 곧 범어는 오랫동안 바라문 계급들에 의해 소리로서 전해져 왔지만, 후에 이 언어를 문자로 표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되어진 문자를 일반적으로 범자(梵字)라 부르는 것이다. 범자란 범(梵) 즉 브라만(Brahman) 신의 문자란 의미로, 곧 범천이 만든 문자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범자의 원어는 브라흐미(brāhmī)로서, 이 브라흐미는 브라흐마(brāhma)의 여성형으로, 이 브라흐마는 사제(司祭)로서의 브라흐만 또는 브라흐만신[범천]에 속한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따라서 브라흐미로서의 범자는 브라만신의 문자로서, 일반적으로 '신성한 문자', '성스런 문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범자를 범천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범자제작과 관련한 네가지

1) 이 글은 발표자의 저서인 <실담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2004)>과 <실담범자입문(2008)>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전승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고 있다[梵王相承].

인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범자는 기원전 2세기 중엽의 아쇼카 문자이다. 이것은 마우리야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쇼카(Aśoka)왕 당시의 문자로서, 당시 왕은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고, 이 재위기간 중에 각종 정책과 방침을 칙명으로 인도 전역의 암벽(岩壁)이나 석주(石柱)에 새기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불교에 귀의한 왕은 각종 불교의 유적지에 당시의 문자가 새겨진 석주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아쇼카 왕 당시에 새겨진 석주나 암벽에 나타나는 문자가 아쇼카 문자로서, 이 문자는 크게 북방 아쇼카 문자와 남방 아쇼카 문자의 둘로 나뉜다. 여기에서 범자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북방 아쇼카 문자로서, 이 북방 아쇼카 문자는 또 카로슈티(Kharoṣṭhī) 문자와 브라흐미(Brāhmī) 문자의 둘로 나뉘어진다.

카로슈티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횡서(橫書)의 표음문자로서, 이 문자는 그 형태의 특징상 기원전 5세기 이후 서북인도에서 알려졌던 아람어 문자(Aramaic Letter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문자 역사상 중요하긴 하지만, 4세기 이후에는 전승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 문자는 후대의 범자의 전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브라흐미 문자는 카로슈티 문자와는 반대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방식으로, 카로슈티 문자에 비해 현저히 개량되어 이 문자로 인하여 고대 인도의 언어를 표기하기에 충분한 문자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특히 이 문자는 처음부터 범어의 음운에 따라 만들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브라흐미 문자중 아쇼카 왕의 석주에 나타나는 가장 오랜 문자를 ‘아쇼카 브리흐미(Aśka-brāhmī)’문자라 부르기도 한다. 이 북방형 브라흐미 문자는 4세기 이후 범어를 공용어로 채용한 굽타 왕조의 번영과 함께 점차 우세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인도의 문자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브라흐미 문자를 바탕으로 인도의 역사적 전개에 동반하여 나타난 범자의 형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다.

(2) ① 마우리아형(Maurya-type)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아쇼카 문자가 대표적.
② 마하라슈트라형(Mahārāṣṭra-type)
기원1세기경 마투라 태수이었던 마하라슈트라의 비명의 각문과 화폐 등에 나타난 문자. 이와 유사한 것으로 1, 2세기에 걸쳐 서북인도를 지배한 쿠샨왕조에서 사용한 쿠샨 북방 범자가 있음.
③ 굽타형(Gupta-type)
서기 320년에 찬드라굽타1세가 즉위하여 북인도에 굽타 왕조가 흥기하여 이 문자가 출현. 후대의 모든 문자는 이 문자를 모태로 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상용되었으며 중요시 됨.
④ 실담자모형(Siddhammātṛkā-type)
굽타형에서 발전한 형태로,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해진 실담문자에 해당.
⑤나가리형(Nāgarī-type)
6세기 이후 인도에서 사용된 굽타형 문자의 변용. 11세기경부터는 전인도에 퍼지고, 13세기에는 오늘날 인도에서 사용되는 데바나가리(Devanāgarī) 문자로 성립됨.
⑥샤라다형(Śārada-type)
7세기경 굽타형 문자의 변종으로 서북인도의 캐시미르 와 인더스 강 오하 지방에서 발생.
⑦전기벵갈형(Proto-Bengalī-type)
11세기 나가리 문자에 의거해 나타난 파생적인 문자.
⑧쿠틸라 형(Kuṭila-type)
11세기경 네팔에서 사용한 문자. 서방 굽타형 문자와 전기 벵갈 문자가 혼합한 형태로 인도에서 15세기말까지 사용.

2.2 실담문자란?

실담문자(悉曇文字)란 범자의 형태 가운데 굽타형의 문자에서 파생된 실담문자형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대다수의 한역경전의 원어에 해당하는 범자이기도 하다. 실담의 원어인 Siddham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sidh의 과거수동분사 siddha에 중성명사 단수 주격을 나타내는 어미 -m이 붙은 것으로 ‘완성된 것’,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 이 실담문자는 범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의미하지만, 한역불교권에서 ‘실담’이란 말의 용법에는 몇가지가 있다. 먼저 첫째로 ‘실담’이란 말의 의미가 성취, 완성이란 뜻에서 실담은 범어의 모음 곧 12마다를 가리킨다. 이것은『실담자기』에서 나타

나는 용법으로, 모음이 그 자체로 완성되어있는 까닭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둘째로는 모음 뿐만 아니라 자음도 포함하여 자모 전체를 실담이라 부른다. 자음인 체문도 기본적으로 a를 포함해 불려지는 까닭이다. 셋째는 범어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모표나 철자 18장의 첫부분에 “성취가 있기를” 이라는 기원의 말을 두었기 때문에 실담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이 기원의 말을 ‘실담라솔도(悉曇囉窣覩, Siddhaṃ rastu, 정확히는 Siddhir astu)’라 번역한 것으로, 따라서 실담은 이러한 歸敬의 구절로서 제목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넷째는 자모표나 실담 18장 전체를 총칭하여 ‘실담’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 용법이 한역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담은 범어의 문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확히는 싯담마트리카를 지칭한다.

실담문자는 북방 한역 경전의 기본적인 범자로서 중국에 전해지고 특히 밀교의 성립과 함께 실담문자는 단순히 문자로서의 의미를 넘어 문자와 관련되어 사상적 전개가 이루어졌다. 곧 실담문자는 밀교의 독특한 존상(尊像)과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아가 그 수행의 대상으로서 간주되어져 이 실담문자에 대한 이해는 밀교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이루어져 ‘실담학(悉曇學)’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동양에서 이러한 실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중국에서 지광(智廣)이 찬술한 『실담자기(悉曇字記)』가 그 효시이다. 이 『실담자기』와 더불어 중국에서는 실담문자로 쓰여진 범어를 학습하는 저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실담학’의 전개는 『실담자기』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진언종(眞言宗)의 개조인 공해(空海)는 『실담자기』를 일본에 전해 ‘실담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2.3 실담문자의 자모(지광, 실담자기)

실담의 자모는 마다(摩多, Mātṛkā)와 체문(體文, Vyañjana)으로 나뉜다. 각각의 마다와 체문은 별지의 표와 같다.

마다란 모(母)의 뜻으로 혹은 운(韻)이라 불리는 것으로 모음을 가리킨다. 모

음은 모두 16자로 각각의 모음은 기본형태를 달리해 자음에 붙어 다수의 소리를 생기게 한다. 모음이 자음에 붙어 다수의 소리를 생기게 할 때의 모습이 한자의 점획과 유사해 변화된 모음은 점획(點劃)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모음 16자 중 흘리(紇里, ṛ), 흘려(紇黎, ṝ), 리(里, ḷ), 리(梨, ḹ)의 네 자를 별마다라고 하며 나머지 12를 통마다, 또는 12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통마다와 별마다의 구분은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기도 하다. 곧 흘리 등의 4자는 그 쓰여지는 바가 매우 적어 18장 중에서도 단지 제16장의 글리장(訖里章)에서 흘리 1자의 결합법 만이 나타날 뿐이다. 그렇지만 12의 통마다는 다수 쓰여지고 있어 18장 중에서도 단지 16장 한 장만 제외하고 모두 쓰여지고 있다. 특히 별마다 가운데 마지막의 리(梨)는 리(里)의 장음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실담자기』에서도 “그 중 흘리(紇里) 등의 네 자는 실담에는 있지만, 글자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쓰이는 바는 지금 생략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의 암(暗, aṃ), 아(痾, aḥ)의 두 자를 특히 계반자(界畔字)라 부르며, 이 두 자를 제외한 앞의 14자를 14음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 둘은 본래의 모음자가 아니라 아(阿)자에서 변화한 것으로, 따라서 이 둘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마치 논과 밭의 경계에 해당하는 두둑과 같은 까닭에 계반이라 부르는 것이다.

자음에 해당하는 체문에는 모두 35자가 있다. 마다의 점획을 붙여 갖가지 글자를 만드는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까닭에 체문이라 한다. 이 중 처음 25자는 아(牙), 치(齒), 설(舌), 후(喉), 순(脣)의 5종류로 나뉘어지는 까닭에 오류성(五類聲)이라고 하고, 나머지 열자는 편구성(遍口聲)이라 칭한다. 오류성은 또 오오성(五五聲), 상수성(相隨性), 오구(五句)라고도 하며, 목과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출처가 각각 다른 까닭에 다섯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아성(牙聲)이란 소위 후음(喉音)으로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이다[범어 Gutturals; ka, kha, ga, gha, ṅa]. 치성(齒聲)이란 악음(顎音, palatals)으로 혀끝이 입천장과 부딪쳐 생겨나는 음이다[범어 Palatals; ca, cha, ja, jha, ña]. 설성(舌聲)이란 은음(斷音, linguals)으로 혀끝이 윗잇몸과 접촉하여 생기는 음이다[범어 Cere-brals; ṭa, ṭha, ḍa, ḍha, ṇa]. 후성(喉聲)이란 치음(齒音, dentals)으로, 혀끝이 이와 접촉하

여 생기는 음을 말한다[범어 Dentals; ta, tha, da, dha, na]. 순성(脣聲)이란 순음(脣音, labials)으로, 두 입술에 의한 파열음이다[범어 Labials; pa, pha, ba, bha, ma]. 이 다섯 부류중 각 소리의 처음의 둘은 청음(淸音), 다음의 둘은 탁음(濁音), 마지막은 비음(鼻音)이다. 그리고 제2, 제4의 음은 기음(氣音, aspirate)을 갖는다. 편구성이란 그 소리의 출처가 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입안 전체에 두루 퍼져있는 까닭에 그와 같이 이름한 것으로, 만구성(滿口聲)이라고도 하며,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초성(超聲)이라고도 한다. 이 열 개의 편구성 가운데 끝의 람(濫, llaṃ)과 차(叉, kṣa)의 두자는 중자(重字) 즉 합성자를 보이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본래 자모는 아니다. 람은 동일한 라(羅)자의 합성으로 소위 당체중자(當體重字)의 예로 나타난 것이며, 차는 각기 다른 이종의 글자가 합성된 것으로 소위 이체중자(異體重字)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실담자기』에 나타난 모음과 자음의 수는 모두 51자인데 반하여 『대당서역기』(제2권)는 총자모수가 47자라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실담자기』의 16모음 중 마지막 두자(aṃ, aḥ)를 제외한 14음과 35자음 중 마지막의 濫과 叉를 제외한 33자를 합쳐 칭한 자모수이다. 『방광대장엄경』제4 <시서품(示書品)>」에는 앞의 14모음 중 흘리(紇里) 등 네 개의 별마다를 제외하고 암(唵, aṃ)과 아(阿, aḥ)의 둘을 더한 모음 12자와 앞서 자음 33자에 차(差, kṣa)를 더한 자음 34를 합쳐 46자로 자모수를 나타내고 있다. 『유가금강정경』 <석자모품>은 『열반경』의 마지막 글자인 차(嗏, la) 대신에 걸쇄(乞灑, kṣa)로 대신하는 것으로서 모두 50자를 전하고 있다. 또한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은 실담자기의 51자 중 마지막의 두 자(llaṃ, kṣa)를 제외한 49자를 전하고 있다.

『실담자기』는 전체 내용을 18장으로 나누어 실담자모의 철자 및 합성자, 연성법등을 밝히고 있지만, 이와같은 18장의 건립은 이미 인도에서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곧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제4, 西方學法)에서는 “본래 49자가 있으며, 모두 서로 합쳐져 18장을 이룬다” 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담 문자의 철자 및 합성법칙에는 18의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18장의 각장의 이름에 대해 일본 안연의 『실담장』에서는 『실담자기』의 18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 명칭을 붙이고 있다.

(3) 제1장 迦迦章　　제2장 枳也枳耶　　제3장 迦略迦略
제4장 迦攞迦攞　　제5장 迦嚩迦嚩　　제6장 迦麼迦麼
제7장 迦娜迦娜　　제8장 阿勒迦　　제9장 阿勒枳耶
제10장 阿勒迦略　　제11장 阿勒迦扌羅　　제12장 阿勒迦嚩
제13장 阿勒迦麼　　제14장 阿勒迦娜　　제15장 異章 또는 盎迦章
제16장 訖里章　　제17장 阿素迦章　　제18장 孤合章

2.3.1 모음

실담문자에서 모음은 마다(摩多, mātṛkā)라고 하며, 그 모음에 대해 실담자기의 <A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 a : 短阿字　　ā : 長阿字
i : 短伊字　　ī : 長伊字
u : 短嘔字　　ū : 長嘔字
e : 短藹字　　ai : 長藹字
o : 短奧字　　au : 長奧字
aṁ : 短暗字　　aḥ : 長痾字

이 12개의 모음 중 두 개를 한쌍으로 묶은 6개에 대해『실담자기』는 의정삼장(義淨三藏)의 말을 빌려 앞의 세쌍(a, ā ; i, ī ; u, ū)을 상단상장(上短上長) 뒤의 세쌍을 상장하단(上長下短)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상의 12개의 모음은 실담의 기본 모음으로 통마다(通摩多)라고 한다. 이외에 범자에서 사용되는 모음 일반인 ṛ ṝ ḷ ḹ의 넷은 실담에서 각각 흘리(紇里), 흘리(紇梨), 리(里), 리(梨)로 한역 표기되지만 실제 다른 자음과 결합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실담 문자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 이 네 개의 글자를 달리 별마다(別摩多)라고 부른다. 그리고 모음문자의 끝의 두자인 aṁ과 aḥ는 자음과 모음이 각각 합쳐져 있는 글자인 까닭에 마치 논과 밭의 경계와 같은 의미에서 계반자(界畔字)라 부르고 있다. 이들 모음은 모두 자음과 결합해 각기 발음을 내는 것으로 그러한 자음과의 결합이 후의 초장에서 제18장에 걸친 전18章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2.3.2 자음

자음을 실담에서는 체문(體文, vyañjana)이라 하며, 모두 35자로 이루어져 있

다.『실담자기』의 <A문>에서는 자음인 체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 다음으로 체문에는 35자가 있다. 따라서 통상 앞에서 실담47자를 밝힌다고 한 것이다. 소리가 나오는 곳은 곧 아(牙)·치(齒)·설(舌)·후(喉)·순(脣) 등으로 합하면 궁(宮)·상(商)으로 된다. 그 문(文)의 각각에는 다섯이 있다. 편구성의 문자는 열 개가 있다.

자음 35자는 사람의 입 속에서 그 나오는 곳에 따라 아음·치음·설음·후음·순음의 다섯과 편구성의 음으로 나뉘어 진다. 다섯의 음은 각각의 음에 또 다섯의 음이 포함되는 까닭에 오류성(五類聲), 오오성(五五聲), 상수성(相隨聲), 오구(五句)라고도 한다. 이것은 입안에서 소리가 나오는 곳에 따라 다섯으로 분류한 것이다. 편구성이란 입안 전체에 퍼져 나오는 소리라는 의미로 이것은 달리 만구성(滿口聲)이라고도 하며, 또한 소리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성(超聲)이라고도 한다. 이와같은 자음의 분류에 대해『실담자기』의 <B문>은 각각의 음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그 문자의 한역을 다음과 같이 붙이고 있다.

(6) 牙聲 — ka(迦字), kha(佉字), ga(迦字), gha(伽字), ṅa(哦字)
齒聲 — ca(者字), cha(車字), ja(社字), jha(社字), ña(若字)
舌聲 — ṭa(吒字), ṭha(侘字) ḍa(荼字) ḍha(荼字) ṇa(拏字)
喉聲 — ta(多字) tha(他字) da(陀字) dha(陀字) na(那字)
脣聲 — pa(波字) pha(頗字) ba(婆字) bha(婆字) ma(麼字)
遍口聲 — ya(也字), ra(囉字), la(羅字), va(嚩字), śa(奢字), ṣa(沙字), sa(娑字), ha(訶字), llaṁ(濫字), kṣa(叉字)

오류성을 목소리의 맑음과 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이 자음 35자 중 편구성 llaṁ을 제외한 34자는 자모음 결합을 다루는 각 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llaṁ은 이미 자음 문자가 결합된 독립된 문자로 다른 문자를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결합에서는 생략된다. 그리고 llaṁ을 제외한 자음은 실담문자의 결합에서 다른 자음과 결합이 가능하다. 결합하는 경

우 일부의 자음은 그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ra와 ya이다. 이와 같이 다른 자음과 결합하는 경우 그 문자모양이 보통 문자보다 작게 변하여 붙게되는 형태를 반체(半體)라 이름한다. 대표적인 반체로서 r는 다른 자음과의 결합법칙에서 매우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음인 마다가 『실담자기』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각각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7) (『望月佛教大辭典』<悉曇>條 참조)

五類聲	淸 音		濁 音		鼻 音
		氣 音		氣 音	
牙聲	ka	kha	ga	gha	ṅa
齒聲	ca	cha	ja	jha	ña
舌聲	ṭa	ṭha	ḍa	ḍha	ṇa
喉聲	ta	tha	da	dha	na
脣聲	pa	pha	ba	bha	ma

2.3.3 음운의 결합체계

이 초장은 후대의 실담가들에 의해 가가장(迦迦章)이라 불리며, 혹은 단장(單章)이라고도 불린다. 『실담자기』<A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 무릇 앞의 34문이다. 아아(阿阿) 등의 12모음이 붙어 발음된다. 마다가 붙어 증가한다. 모두 만들어진 글자는 408자이다. 곧 가(迦 ka, 上聲), 가(迦 kā, 平聲)등이 이것이다. 가의 소리 아래에 12개의 글자가 있어 迦자와 함께 사용되어 자체(字體)가 된다. 아아(阿阿) 등의 모음이 붙어 발음됨으로써 그 마다가 증가하며, 소리의 모음이 합쳐져 각각 형성된다. 가(佉 kha), 가(伽 ga) 등의 소리 아래에도 그것이 붙는다. 합하여져 한 장을 이룬다.

곧 자음 35문자 가운데 llaṁ을 제외한 34문자에 모음 12자가 각기 붙는 것을 말한다. 즉 ka kā ki kī … kṣa kṣā …kṣaḥ 로 이루어지는 408자를 말한다. 이 초장의 글자는 제2장 이하의 모든 자음 결합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실담문자의 훈민정음 표기

(9) 고려대장경의 실담장[2)]

실담문자	고려대장경	실담문자	고려대장경	실담문자	고려대장경
a	阿上	ka	迦	da	娜
ā	阿去引	kha	佉	dha	馱
ı	伊上	ga		na	囊
ī	伊去引	gha	伽	pa	跛
u	塢	ṅa	仰	pha	頗
ū	汙	ca	左	ba	麼
e	暧	cha	磋	bha	婆
ai	愛	ja	惹	ma	莽
o	汙	jha	鄴	ya	野
au	奧去引	ña	穰	ra	囉
aṃ	闇	ṭa	吒	la	儸
aḥ	惡	ṭha	咤	va	嚩
ṛ	哩	ḍa	拏	śa	捨
ṝ	哩引	ḍha	荼	ṣa	灑
ḷ		ṇa	嬢	sa	娑
ḹ	嚧	ta	多	ha	賀
		tha	他	kṣa	乞灑

국어학계에서는 진언의 표기는 차자표기와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최현배(1961 : 551-560), 허웅(1965, 1985 : 350-363), 박병채(1966, 1979), 심재기(1976), 최세화(1992) 등에서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

2) 고려대장경에서는 실담문자에 대해 한역음을 대응시켜 놓고 있는데, 실담문자는 컴퓨터 자판화되지 않아서 로마자로 대신한다.

졌다. 이외에도 진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병희(1978), 홍윤표(1997: 204), 김영배(2000: 281-286), 정재영(2000: 23-24)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진언은 불교가 들어올 당시부터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역된 진언표기가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배불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았지만, 진언은 기복신앙의 방편으로 계속 암송되었으며, 특히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이를 한글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다. 진언의 한글표기는 본격적인 진언집이 나오기 이전인 <월인석보> 중 일부(권10의 72-116장, 권21의 70-73장, 권19)를 비롯하여 <오대진언(五大眞言)>(1485년),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언해(眞言勸供·三壇施食文 諺解>(1496년)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 <월인석보>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오대진언>과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언해> 등에서는 당시의 현실음으로 적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진언의 음만을 "범어-한글-한자"나 "한자-한글"의 순으로 음사해 놓았기 때문에 범어음을 적던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한편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진언만을 따로 모아 큰 사찰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진언집>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심사(安心寺)본(1569년간)과 만연사(萬淵寺)본(1777년간), 그리고 망월사(望月寺)본(1800년간)이 주목된다. 이중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진언집>은 안심사본(1569년)인데, 이 문헌에는 진언을 적던 실담문자에 대한 '실담장(悉曇章)'과 한글 표기의 기준이 되는 '언본(諺本)'이 앞부분에 실려 있어 실담문자에 대한 당시의 표기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한 당대제일의 범자 학승이었던 용암(龍巖)화상에 의해 편찬된 만연사본(1777년간) <진언집>은 종래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진언집, 오대집, 조상경' 등의 잘못된 곳을 여러 경전의 언해, 홍무정운, 삼운성휘 등과 같은 언문 주석서를 참조하면서 새롭게 수정한 것이다. 만연사본에는 권하에 부록으로 실담장 아자론(阿字論)과 용암화상이 증수·교대한 범례(凡例), 홍무운자모지도, 언본십육자모, 범본오십자모실담장이 실려 있다.

3.1 망월사본 <진언집>의 실담장

실담문자는 모음인 마다(摩多, mātṛkā)와 자음인 체문(體文, vyaňjana)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담장해의총론>에서는 실담의 기본자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0) 무릇 梵字의 字母는 총체적으로 12轉聲, 25牙等5音, 9會音(이는 超音라고도 한다) 4助音을 가지는데, 모두 합쳐 50자가 된다. <진언집 권수: 8b >

모음에 해당하는 12전성(轉聲)과 자음에 해당하는 25음, 그리고 9회음(會音, 혹은 超音), 4조음(助音) 등을 포함한 50자를 기본자모라 하고 있다. 불교 전적에 따라 실담문자의 자모의 수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47자에서 51자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광의 <실담자기>에서 나타난 기본자모와 비교하여 <진언집>에서 설명된 범어의 기본자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1 모음

실담문자의 모음에 대해 <진언집총론>에서는 12전자(轉字)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1) 그 중 12轉字는 5음, 9會音 등 34자 속에 넣어, 음의 문자가 된다. 자세한 것은 청량의 演義疏抄 중이나 진언집에 나와 있다. 실담장에서는 곧 번거로워 설하지 않았다. 문자가 간략해 이해하기 어려워 지금 대략을 설한 것이 곧 12전자이다. 그 중 앞의 2자인 阿, 啊와 후의 2자 唵, 惡 등 4자는 즉 總義가 되고 나머지는 別義가 된다.[3] <진언집 권수: 8b-9a>

기본모음 12전자(轉字)는 자음에 해당하는 五音(즉 牙, 舌, 脣, 齒, 喉 ×5 = 25음)과 9회음에 들어가 획을 그어 변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12전성이 자음에 결합되어 다른 음이 되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 지광의 <실담

3) 而其中十二轉字 徧入於五音九會等三十四字之中. 添畫變音之文 具在淸凉演義疏抄中 及眞言集. 悉曇章 則更不贅說 然文略難解故 今姑擧大略以敍之耳 十二轉字中前二阿啊及後二音惡四字 則爲總義, 而餘則別義也云. 何謂 總也 頌云. <진언집 권수: 8b-9a>

자기>에서 12통마다라고 한 설명과 같은 부분이다.

(12) <12전자(轉字)>

a 阿(上) :하 :ᄒᆞ ·허 :흐	ā 啊(去) ·하 ·ᄒᆞ ·허 ·흐	i 伊(上) ·해 :히 :혜 :히	ī 咿(去) ·해 ·히 ·혜 ·히
u 烏(上) :화 :호 :훠 :후	ū 嗚(去) ·화 ·호 ·훠 ·후	e 曳(去) ·애 ·에 ·예 ·여	ai 愛(入) ·해 ·히 ·혜 ·희
o 汙(去) ·화 ·호 ·훠 ·후	au 우(入) ·화 ·호 ·훠 ·후	aṃ 暗(去) ·함·ᄒᆞㅁ·허ㅁ ·흠	aḥ 惡(入) ·학 ·ᄒᆞㄱ·허ㄱ·흑

<실담자기>에서는 12통마다, 즉 12개의 모음 중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은 6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a, ā : i, ī : u, ū 上短下長
e, ai : o, au : aṁ, aḥ 上長下短

<진언집>에서도 12전자를 위와 같이 펼쳐 보이고, 그 아래에 前之六字 前短後長, 後之六字 前長後短이라고 했다. 이는 12전자 중 앞의 6자는 전단후장이고, 후의 6자는 전장후단으로 대비됨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12전자 중 전 2자인 "a 阿, ā 啊"와 후의 2자인 "aṃ 暗, aḥ 惡"은 총의(總義)가 되고 나머지 8자는 별의(別義)가 된다고 했다. 또한 범본50자모에서 12전자의 4총의와 구분하여 가운데 8자를 팔전삼매자(八轉三昧字)라 이름하였다.

망월사본 <진언집> 권수에서 밝힌 12전성의 '범어-한자-한글'의 대역 표기를 살펴보면, 음운체계가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괴리를 되도록 없애고, 범어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면 범어음의 "a, ā : i, ī : u, ū : e, ai : o, au : aṁ, aḥ"에 대응하는 하나의 한자 음역과 네 개의 한글 음역자를 대비시키고 있다. 범어의 모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보면 "阿 : 啊, 伊 : 咿, 烏 : 嗚, 汙 : 汙"로 장음에 해당하는 한자 음역자는 단음의 한자에 "口"를 우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범어의 장단음을 한자로 구별하기 위해 만든 고육책으로서 본래 한자에는 없던 범어음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다.

범어에 대응되는 한글음은 위와 같이 초성자에 “ㆆ”을 사용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음을 4가지로 나누어 펼쳐 놓고 있다. 1800년대에 간행된 망월사본 <진언집>에서 [e] 曳를 제외하고는 초성자를 “ㆆ”로 표기하고 있다. “ㆆ”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불완전한 자로서, 입성이나 외국음을 적는데 주로 쓰였고, 순수 국어를 적는 데에는 쓰이지 않았다. 최초의 진언집이라 할 수 있는 안심사본(1569년간)의 <실담오십자문>에서도 12전성의 표기는 “ㆆ”이 아닌 “ㅇ” 표기로 되어 있다. 이는 망월사본은 만연사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만연사본의 목적은 당시 잘못된 진언음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사라진 문자이지만, 범어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성에 “ㆆ”을 썼는데, 망월사본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진언의 표기에서도 만연사본에서는 “ㆆ”로 표기가 된 반면, 망월사본의 실제 진언표기에서는 “ㆆ”의 표기는 볼 수 없고, “ㅇ”으로만 된 표기를 볼 수 있다.

<실담자기>에서는 16기본 모음 중 별마다(別摩多)로 본 4개의 자는 조음(助音)이라 하여 모음과는 별개로 놓았다. 이는 자음에 결합하여 새로운 字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주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항목을 둔 것이다. <실담자기>에서도 “r̄ 紇梨” 등의 4자는 그 쓰이는 바가 매우 적어 실담18장 중에서도 단지 16장의 紇梨章에서 “r̄ 紇梨”의 1자의 결합법만이 나타날 뿐이다. 그렇지만, 12의 통마다는 다수 쓰여져 18장 중에서도 단지 16장 한 장만 제외하고는 모두 쓰이고 있다. 특히 별마다 가운데 마지막의 “l̄ 梨”는 “l̲ 梨”의 장음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13) <4 조음>

r̲ 里(上) :래 :릐 :례 :리	r̄ 哩(去) ·래 ·릐 ·례 ·리	l̲ 梨(上) :래 :릐 :례 :리	l̄ 梨(去) ·래 ·릐 ·례 ·리

3.1.2 자음

자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담자기>에서는 체문(體文) 35자를 두었다. 이들 체문은 마다에 점획을 붙여 여러 개의 글자를 만듦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

다. 이 중 처음 25자는 牙, 齒, 舌, 喉, 脣의 5종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오류성(五類聲)이라고 하고, 나머지 10자는 편구성(遍口聲)이라고 한다. 오류성(五類聲)은 발성기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13) <체문(오류성)과 편구성>

五類聲	淸音		濁音		鼻音	비고
		氣音		氣音		
牙聲	k	kh	g	gh	ṅ	軟口蓋音에 해당
齒聲	c	ch	j	jh	ñ	硬口蓋音에 해당
舌聲	ṭ	ṭh	ḍ	ḍh	ṇ	捲舌音에 해당
喉聲	t	th	d	dh	n	齒音에 해당
脣聲	p	ph	b	bh	m	兩脣音에 해당
遍口聲	y r l v ś ṣ s h llaṃ kṣa					

이를 음성학적으로 보면, 아성(牙聲)은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로서 [ka, kha, ga, gha, ṅa] 등을 뜻하고, 치성(齒聲)이란 악음(顎音)으로 혀끝이 입천장과 부딪쳐 생겨나는 음으로 [ca, cha, ja, jha, ñа]이 해당된다. 설성(舌聲)이란 단음으로 혀끝이 윗잇몸과 접촉하여 생기는 음으로 권설음 [ṭa, ṭha, ḍa, ḍha, ṇa]이다. 여기서 후성(喉聲)은 치경음으로, 혀끝이 이와 접촉하여 생기는 음으로 [ta, tha, da, dha, na]이다. 순성(脣聲)이란 양순음으로, 두 입술에 의한 파열음 [pa, pha, ba, bha, ma]이다. 이 다섯 부류 중 각 소리의 처음의 둘은 청음(淸音), 다음의 둘은 탁음(濁音), 마지막은 비음(鼻音)으로 나뉘며,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음은 기음(氣音, aspirate)을 갖는다고 한다.(이태승, 2000) 그런데 범어에서의 처음 둘이 청음이라 할지라도 [k, c, ṭ, t, p]는 청각음성학적으로 우리말 화자에게는 된소리인 “까, 짜, 따, 따, 빠”에 가깝게 들린다. 또한 氣音인 [kh, ch, ṭh, th, ph]는 거센소리인 “카, 차, 타, 타, 파”로 들리며, 탁음 중 평음인 [g, j, ḍ d, b]는 우리말에서의 예삿소리인 “가, 자, 다, 다, 바”로 들린다. 탁음 중 氣音인 [gh, jh, ḍh, dh, bh]는 우리말에서는 “그하, 즈하, 드하,

드하, 브하”에 가깝게 들린다. 또한 위에서 보이는 권설음인 설성 [ṭ, ṭh, ḍ ḍh, ṇ]과 치경음적인 후성 [t, th, d, dh, n]의 발음을 우리말 화자들은 청각음성학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실담자기>에서는 자음 안에 편구성인 [y], [r], [l], [v]과 치음성 마찰음 [ś], 권설음 마찰음 [ṣ], 치음 [s]와 기음 [h], 그리고 결합 자음 [llaṃ] [kṣa] 등 10개를 두고 있다. 이 중 [r]과 [l]음은 구별하기 어렵고, 또한 [v]음은 순성(脣聲)인 [b]와 변별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ś], [ṣ], [s]의 구별은 사실상 우리말에서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 <진언집>에서 실담문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자로는 앞서 보았듯이 25아등오음과 9회음으로 나누어 한글음을 대응시키고 있다. 25아등5음이란 <실담자기>에서 오류성이라 불리던 것들로서 발음되는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려 보이고 있다.

(14) < 25아등5음: 오류성>

牙音	ka 迦(平/淸) 가 ᄀᆞ 거 그	kha 佉(平/濁) 카 ᄏᆞ 커 크	ga 我(上) :아 :ᄋᆞ :어 :으	gha 伽(去) ·까·ᄁᆞ ·꺼 ·끄	ṅa 仰(入) ·앙·ᄋᆞᆼ·엉·웅
齒音	ca 左(平/淸) 자 ᄌᆞ 저 즈	cha 差(平/濁) 차 ᄎᆞ 처 츠	ja 惹(上) :사 :ᄉᆞ :서 :스	jha 社(去) ·짜 ·쭈 ·쩌·쯔	ña 攘(入) ·상·ᄋᆞᆼ ·싱· 슝
舌音	ṭa 吒(平/淸) 다 ᄃᆞ 더 드	ṭha 侘(平/濁) 타 ᄐᆞ 터 트	ḍa 拏(上) :나 :ᄂᆞ :너 :느	ḍha 荼(去) ·따·뚜·떠 ·뜨	ṇa 囊(入) ·낭·ᄂᆞᆼ ·넝 ·눙
喉音	ta 多(平/淸) 다 ᄃᆞ 더 드	tha 佗(平/濁) 타 ᄐᆞ 터 트	da 那(上) :나 :ᄂᆞ :너 :느	dha 馱(去) ·따·뚜·떠 ·뜨	na 娜(入) ·낭 ·ᄂᆞᆼ ·넝·눙
脣音	pa 波(平/淸) 바 ᄇᆞ 버 브	pha 頗(平/濁) 파 ᄑᆞ 퍼 프	ba 摩(上) :마 :ᄆᆞ :머 :므	bha 婆(去) ·빠·뿌 ·뻐 ·쁘	ma 莽(入) ·망·ᄆᆞᆼ·멍·뭉

범어에 한글로 대응된 자를 보면, 12전성과 같이 범어에 대응되는 한글음을 4자씩 배치하고 있다. 이를 보면 권설음적인 설성 [ṭ, ṭh, ḍ ḍh, ṇ]과 치경음적인 후성인 [t, th, d, dh, n]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서 한글 음사로는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는 범어와 우리말의 기본적인 음운체계의 차이로서 변별할 방법이 없음을 보여 주는데, 실제 진언표기에서도 이들은 구별되지 않고 있다. “淸

音/平音”인 “가 ᄀᆞ 거 그 : 자 ᄌᆞ 저 즈 : 다 ᄃᆞ 더 드 : 다 ᄃᆞ 더 드 : 바 ᄇᆞ 버 브”들은 모두 평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실상 범어 실제음은 청각음성학적으로 경음으로 들리지만, 한자로 음역되는 과정에서 평음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복자음으로 발음될 “濁音/去聲”이 각자병서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표의 세 번째 칸에 해당되는 상성의 음 즉, [ga, ja, ḍa, da, ba]에 대응되는 한글 음을 [:아, :ㅅ아, :나, :나, :마]로 대응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음들은 평음으로 들리는 음들이다. 이 음들은 첫 번째 칸의 평성/청음인 [가, 자, 다, 다, 바]와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 :ᄉᆞ, :나, :나, :마]로 표시해 놓았다. 이것은 후에 한자음과 괴리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불경독송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15) ㄱ. oṃ gagana sambhavabajra hoḥ
:옴 。·아·아·나 。:삼:바·바·바·ㅅ라 。·혹
唵 葛葛囊 三婆嚩嚩日囉(二合) 斛 <망월사본 진언집 普供養眞言>

ㄴ. Namaḥ sarvatathāgatebhyaḥ bśvamukhebhyaḥ
·나·막·° 살·바 다·타:아:데·뱍° ·미·ᄉᆞ뱌·목·켸·뱍°
囊幕 薩栗嚩(二合)怛他薩女(二合)帝毗藥(二合) 尾沙嚩(二合)目計毗藥(二合)

sarva
·살:바 ·타:감°
薩栗嚩(二合) 他劒 <망월사본 진언집 普供養眞言>

범어의 “gagana”는 한자로 음사할 경우 “葛 葛 囊”로 음사되나, 한글로 음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아·아·나”로 음사한다. “sarvatathāgatebhyaḥ”를 한글로 음사할 경우 “살·바다·타:아:데·뱍”로 [ga]를 “아”로 음사하고 있다. 또한 “bśvamukhebhyaḥ”에서 [b]음에 해당하는 것을 한글로 음사할 경우에는 “·미·ᄉᆞ뱌·목·켸·뱍”에서처럼 “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한자 음사로는 “尾”이다. 현재 불경을 독송할 경우에도 위의 규칙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범어음 [gate]에 해당하는 것을 한역으로는 “揭諦 揭諦”로 표기하고 있지만, 우리말로는 “아제아제’라고 읽는다. 이를 두고 범어 ‘gate’에서 어두음 ‘g’이 탈락했다고 설명하거나, 독송 시에 발음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생겨난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최세화 1992: 607), “揭”를 “알”로 읽는 것은 진언적인 특성이라고만 추정하기도 한다.(정우영 1996: 141) 그러나 이는 망월사본 <진언집>의 ‘실담장해의총론’에서 보듯이 범어음을 우리말의 음과 체계에 맞추어 적다 보니, 본래의 범어음이나 한자음과 괴리가 생긴 것이다.

자음 중 체문을 제외한 나머지 9자(실담자기에서는 10자 라고 함)를 <실담자기>에서는 편구성이라고 하였다. 편구성이란 그 소리의 출처가 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입안 전체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이 소리가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는 초음(超音)이라고도 했고, 이런 음들이 여러 곳으로부터 모였다고 하여 화회성(和會聲)이라고도 하였다.

(16) <9초음>

ya 野(上) :야 :여 :요 :유	ra 囉(去) ·라 ·ᄅᆞ ·러 ·르	la 儸(平) 라 ᄅᆞ 러 르	va 嚩(上) :바 :ᄇᆞ :버 :브	śa 舍(去) ·샤 ·ᄉᆡ ·셔 ·ᄉᆡ
ṣa 沙(平) 사 ᄉᆞ 서 스	sa 薩(上) :사 :ᄉᆞ :서 :스	ha 賀(去) ·ᄒᆞᅀᅡ ·ᄒᆞᅀᆞ ·ᄒᆞᅀᅥ ·ᄒᆞᅀᅳ	kṣa 乞灑(平) 가사 ᄀᆞ사 거셔 그셔(二合)	

<진언집>에서 9초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우리말 음과 유사한 음을 대응시켜 놓고 있다. 이 중 [r]과 [l]음은 방점이외에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모두 “라, ᄅᆞ, 러, 르”로 표기되고 있으며, 특히 치음인 [ś], [ṣ], [s]는 각각 “·샤 ·ᄉᆡ ·셔 ·ᄉᆡ : 사 ᄉᆞ 서 스 : :샤 :ᄉᆞ :서 :스”로 구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언표기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음인 [h]는 한글 음사로 “·ᄒᆞᅀᅡ ·ᄒᆞᅀᆞ ·ᄒᆞᅀᅥ ·ᄒᆞᅀᅳ”를 대응시키고 있지만, 이 역시 범어음에 가깝게 적으려는 표기일 뿐이지, 실제적인 진언표기에서는 위의 글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실담자기>에서는 범자를 51자로 두고 있는 반면, <진언집>에선 50자로 보고 있다. 이것은 <실담자기>에서는 초음 중에 “llaṃ 濫” 자를 하나 더 두었기 때문이다. llaṃ 濫은 이미 자음 문자가 결합된 독립된 문자이므로 다른 문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진언집>에서는 제외시킨 것이다.

초음 가운데 끝의 llaṃ 濫과 kṣa 叉의 두자는 중자(重字) 즉 합성자를 보이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본래 자모는 아니다. 濫은 동일한 羅자의 합성으로 당체중자(當體重字)의 예로 나타난 것이며, 叉는 각기 다른 이종의 글자가 합성된 것으로 이체중자(異體重字)의 예를 보이고 있다.

(17) 五音之字若與 上十二聲反之則如漢字反
若與下超音相合 則如乞酒之類 上字半訓下字全訓 <진언집 권수: 22b>

중자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五音 자 중에 만약 위의 12성과 반대인 것은 즉 한자 반절식과 같다. 만약 아래 초음과 서로 합하여져 마치 乞酒처럼 윗 글자의 반훈(半訓)과 아래 글자의 전훈(全訓)이 합하여진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12전성이 결합된 자가 아닌 자들은 한자의 반절법과 같은 독법으로 읽고 쓰는데, 위 글자의 반훈이란 위 글자의 성모(聲母)를 나타내고, 아래 글자의 전훈이란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를 모두 나타내는 것이다. "乞酒"는 위 글자의 [k]음과 이랫 글자의 [ṣa]음을 따서 [kṣa]로 읽히는 것이다. 실담장의 kṣa 乞酒는 범어에서의 어두자음군의 표기방법을 보인 것이다. 범어는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는 언어인데, 이를 한문으로 음역할 경우에 실제적인 음을 모두 담아 표기할 수가 없으므로, "二合, 三合, 四合"의 중자로 표기한다.

(18) ㄱ. 唵 三昧耶 薩怛鋏(三合) 唵 母地唧多沒 怛嚩(二合) 那野弭
:옴 ·삼·ᄆᆡ:야 ·ᄉᆞ:밤 :옴 :모:디:지다:모 ᄃᆞ:바 ·나:야:미
<진언집 상: 1b>
ㄴ. 嚢謨 三滿多 沒馱喃 唵 尒嚢尒迦 伊呬曳(二合)呬婆嚩(二合)訶
·나·모 :샴·만다 ·몯·다·남 :옴 :이·나:이갸 ·예·혜·혜·ᄉᆞ·:바·하
<진언집 상: 3b>
ㄷ. 納謨 薄伽 伐帝 鉢唎(二合) 若 波羅密多曳 但姪陀 唵
·나·모 :바·가 뎨 ᄇᆞ:리 :야 바·라:미다·예 다·냐·타 :옴
紇唎(二合) 地唎(二合) 室哩(二合)
·ᄒᆞ:리 ·ᄃᆞ:리 ·ᄉᆡ:리 <진언집 하: 1b>
ㄹ. 嚢慕 悉底哩也(四合) 地尾(二合) 迦 南
나·모 ·ᄉᆞ:랴 ·ᄃᆞ:미 가 ·남 <진언집 하: 2a>

(18)에서 보면 범어로는 하나의 음절로 된 것을 한자로 음역할 경우 2음절, 3음절, 4음절로 표기하고 있다. 본래 범어로는 “stvaṃ－薩怛鋏－ᄉᆞᄫᆞᆷ, tvā－怛嚩－ᄃᆞ바, svā－婆嚩－ᄉᆞ바, pr－鉢唎－ᄇᆞ리, hṛ－紇唎－ᄒᆞ리”처럼 어두자음군으로 썼는데, 이를 한역으로는 한자의 성운에 맞는 것을 취해 二合, 三合으로 표시하다가 한글로 음사할 경우에는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중자표기에 관한 규정은 범어와 중국어 그리고 우리말의 음운체계와 표기하는 문자의 차이에서 생기는 여러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은 것이다.

3. 특징

망월사본 <진언집(1800)>의 권수 내용 중 “진언집총론”과 “실담장해의총론”을 바탕으로 당시 진언을 표기하던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에 밝혀진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진언을 한글로 음사하려는 노력이 매우 활발해져, 현재 진언에 대한 여러 전적들이 남아 있다. <진언집>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안심사본이며, 그 외 만연사본과 망월사본이 주목된다. 진언은 오랫동안 불가에서 실제로 독송되던 현실음이 있었는데, 만연사본은 당시의 독송되던 한글음이 본래의 범어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목적으로 범어에 관해 능통한 용암화상이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만연사본은 범어음에 가깝게 한글음으로 표기하려 했으며, 이를 저본으로 한 망월사본은 권수에서는 본래의 범어음에 가깝게 한글음을 대응시키고 있지만, 실제 진언을 표기하고 있는 <진언집> 상, 하는 만연사본의 것보다 전통적으로 독송되던 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망월사본의 권수 내용은 범어음에 가까운 표기라면, 실제 진언표기에서는 방점과 같이 그전의 진언표기를 따른 것도 있으나, 만연사본에 비해 매우 현실화된 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둘째, 망월사본 진언집의 ‘진언집총론’에서는 진언과 그것을 적는 문자인 실담문자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실담문자는 표음문자이므로, 문자의 자형과 거

기에 해당하는 음만을 기술하면 되지만, 대표적인 실담문자가 들어가는 어구의 불교적인 의미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모든 자가 생성되는 本字로서 “a (阿)”자를 두고 여기에 “ā (啊), aṃ (唵), aḥ(吽)”자 등을 총의라고 설명해 놓았다.

셋째, ‘실담장해의총론’에서는 실담장의 유래와 실담자모 조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실담문자에는 모음에 해당하는 마다와 자음에 해당하는 체문이 있다. 문헌에 따라 실담자모를 47개, 혹은 50개, 혹은 51개로 보기도 하지만, 이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는 범본50자모실담을 잡았다. 그 중 모음에 해당하는 것을 12전자라 하고, “阿, 啊, 暗, 惡”을 4총의라 칭하였으며, 나머지 8자를 별의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4조음을 따로 분리해 두었다.(표2 참조) 자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체문이라 하는데, 牙音을 포함하여 齒音, 舌音, 喉音, 脣音 등 오음에 각각 五聲이 있어 모두 25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9회음, 또는 편구성(초음 또는 화회성)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4. 훈민정음과 실담문자의 관계

서론에서 밝혔듯이 "字倣古篆”의 해석이 분분하여, 범자 및 티베트어 기원설, 고전기원설, 몽고 파스파문자 기원설, 고대문자기원설, 태극사상기원설 등의 많은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범자의 한 종류인 실담문자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여러 기원설 중 범자기원설과 티베트어 기원설은 가장 오래된 기원설 중의 하나이다.

(19) “그 글 자체는 범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어음문자(語音文字)로써 표기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막힘없이 기록할 수 있었다.” 성현(1439~1504) <용재총화>

(20) “우리나라 언서(諺書)는 글자 모양이 전적으로 범자를 본떴다.” 이수광 (1563~1628) <지봉유설>

(21) “우리 훈민정음의 연원은 대저 여기에 근본하였으되, 결국 범자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황윤석(1729~1791), <韻學本源>

(22) 범자와 언문글자의 꼴과 소리가 서로 비슷한 것 몇 가지를 실례를 들어가며 두 언어의 비슷함을 주장했다. 이능화 <조선불교통사>(1932년 간)

(23)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해 범어나 티베트어 기원설을 주장하는 외국학자의 논의
일본의 금택장삼랑(金澤庄三郎, 1900, 1911)
러시아권 이스트린(1965), 러시예프(1966), 콘체비치(1973)
레뮈자(1820), 쿠랑(1894, 1895), 헐버트(1982, 1896), 호프(1957),
에카르트(1960), 필(1983) (김민수 외, 외국인의 한글연구(태학사, 1997))

(24) "약 24권으로 추정되는 방대한 양의 불경(<석보상절>)이, 한글이 창제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즉 한글이 세종 28년 9월에 정식으로 반포된 것으로 본다면, 석보상절은 한글이 정식으로 반포도 되기 전부터 한문본이 편찬되고 이어서 번역까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완료된 셈인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한글 반포 이전부터 불교에 정통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큰 사업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질 수 없었을 것이다." (강신항, 1992, 한글창제의 배경과 불교와의 관계, <불교문화연구> 3집)

(25) '나랏말ᄊᆞ미듕귁에달아…'로 시작하는 한글 어지(御旨) 108자와 '國之語音異乎中國…'으로 시작되는 한문어지는 108의 꼭 절반인 54자로 이루어져 있고, (중략) <월인석보> 제1권의 장수(張數)도 108쪽이다 (중략) 훈민정음의 창제 당사자들이 이렇듯 일련의 주도면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불교 보급의 목적이 담겨 있다. (김광해, 1992, 한글창제와 불교신앙, <불교문화연구> 3집)

(26) "비록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에 협력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훈민정음의 글자모양과 음운학, 또 훈민정음 창제 후 곧바로 실시된 불경 간행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신미의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다. 억불의 시대에 신미는 자신의 공덕을 숨기고 한없이 낮춤으로서 대불사를 일궈냈는지도 모른다."(이재형, 2004,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신미의 역할, <한국불교문화연구>, 4집)

5. 결론

<참고문헌>

김완진(1996),『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남권희(1999),「12세기 간행의 불교자료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제17집, 서지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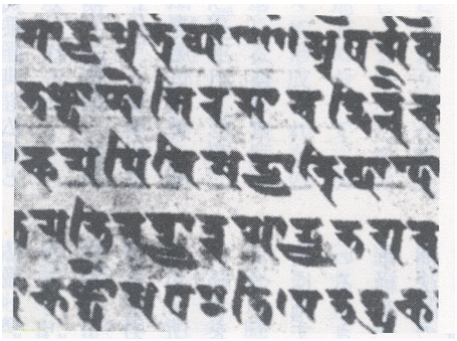
남권희(2002),『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대장경 파니니 연구회편(2000),『고려대장경의 고전범어문법 연구』, 고려대장경연구소.
박병채(1979),「眞言集悉曇章攷」,『일산 김준영선생화갑기념』, 국어문학.국어문학회.
세계문자연구회(1992),『세계의 문자』, 범우사: 237-240면.
심재기(1976),「漢字의 眞言音寫에 대하여」,『김형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안병희(1978),「진언권공·삼단시식문 해제」,『진언권공 삼단시식문 영인본』, 1국어학자료총서2.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안병희(1987),「한글판 <오대진언>에 대하여」,『한글』195, 안병희(1992)에 수록.
안병희(1992),『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안주호(2003), 만연사본(1777) 진언집 연구, <국어국문학> 130.
이태승 편역(F 에저톤 외)(2000ㄱ),『불교혼성범어 입문』, 위덕대학교 출판부.
이태승(2000ㄴ),「중국에서의 悉曇學 形成에 대하여」, 밀교학보』2,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이태승(2001),「智廣의 <悉曇字記> 연구」,『밀교학보』3,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이태승·안주호(2002),「<실담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에 나타난 실담자모 비교 연구」,『문헌과 해석』21. 문헌과 해석사.
이태승·안주호(2004), <실담자기와 망월사본 진언집 연구>, 글익는들.
이태승·최성규저(2008), <실담범자입문>, 정우서적.
정 각(1996),『천수경 연구』, 운주사.
정우영(1995),「般若心經諺解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考察(1)」,『東岳語文論集』30, 동악어문학회.
최세화(1992),「漢譯 般若心經 音譯語의 讀誦音에 대하여」,『이기영박사 고희기념논총』.
최현배(1961),『고친 한글갈』, 정음사.
허 웅(1965, 1985),『국어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
林光明(Lin, Tony K.) 編修(2001),『大藏全咒新編(The New Edition of All Mantras in Mahāpiṭaka』, 臺灣: 嘉豊出版社.
全佛編輯部(2000),『佛菩薩種子字書寫手帖』, 臺灣: 全佛文化事業有限公司.

이지수옮김,『산스끄리뜨의 기초와 실천』, 민족사, 1990.
이태승 편역,『불교혼성범어 입문』, 위덕대학교 출판부, 2000.
전수태옮김,『산스크리트 문법』, 박이정,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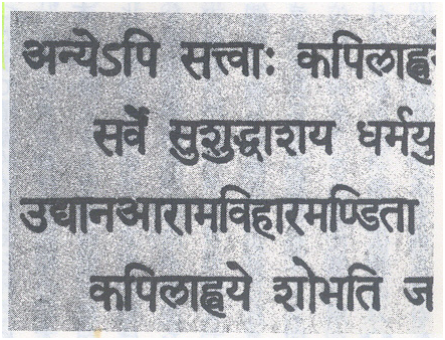
德山暉純,『梵字手帖』, 木耳社, 1976.
川勝政太靜郎著,『梵字講話』, 河原書店, 1980.

德山暉純,『梵字の書き方』, 木耳社, 1985.
兒玉義隆,『梵字必携』, 朱鷺書房, 1991.
大法輪編輯部編『眞言·梵字の 基礎知識』, 大法輪閣, 1993.
靜 慈圓,『梵字悉曇』, 朱鷺書房, 1997.
靜 慈圓,『梵字で書く般若心經』, 朱鷺書房, 2001.
『佛敎文化事典』, 佼成出版社, 1989.
林光明編著,『梵字悉曇入門』, 嘉豊出版社, 1999.
M.R.Kale, *A HIGHER SANSKRITGRAMMAR*, Motilal Banarsidass, 1972.
M. Monier Williams, *Sanskrit-English Dictionary*, Oxford, 1982.
Michael Coulson, *SANSKRIT*, Hodder & Stoughton, 1992.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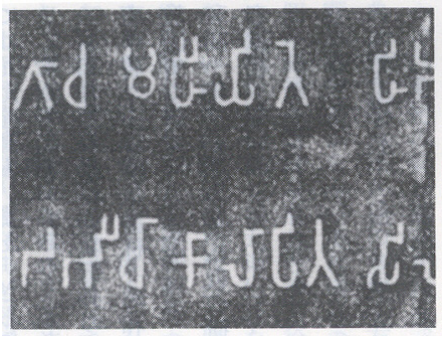


굽타브라흐미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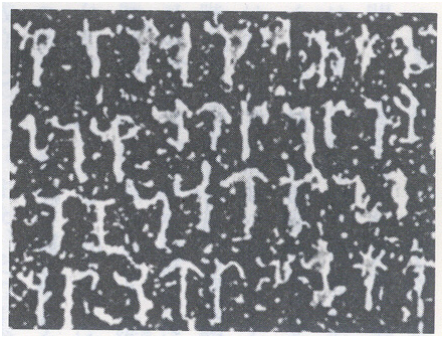


데바나가리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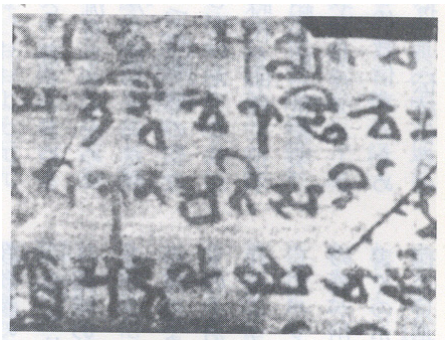
실담 문자



아쇼카브라흐미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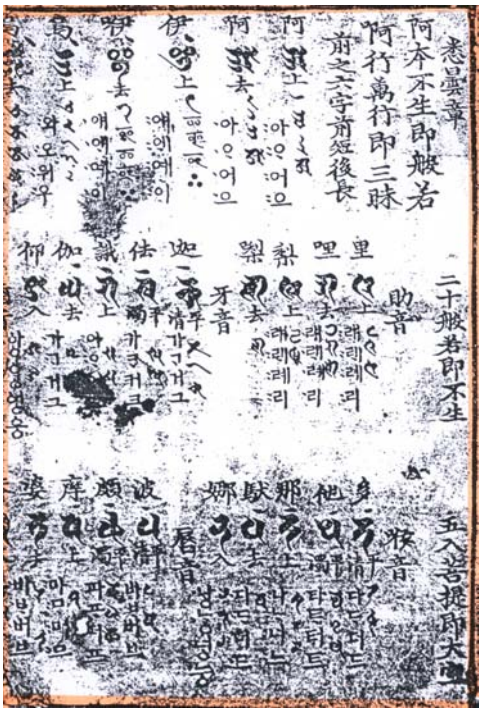
카로슈티 문자



쿠샨브라흐미 문자

실담범자 자모 분류표

<진언집> 전통범자 복원 자모표



<진언집> 실담장